



도통동·도공 남원지사, 다문화·소외계층 교육비 지원

남원시 도통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선자)와 한국도로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병진)는 1일 1가구 행정 일일으로 5월부터 관내 거주하는 다문화 및 소외계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다문화 및 소외계층 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교육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다양한 배경의 아동들이 평등한 출발선을 가질 수 있도록 5월부터 12월까지 월 4회 도통동 관내 학원에서 국어 또는 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병진 지사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비를 지원하면서 교육 소외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국립군산대, 산불피해 극복을 위한 성금 전달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9일 최근 발생한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463만 원을 기탁했다. 이를 위해 국립군산대는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난 10일 동안 성금 모금에 나섰으며 142명이 참여해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해당 성금은 이재민을 위한 긴급 지원과 구호 물품 공급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기욱 국립군산대 총장 직무대리는 "예기치 못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립군산대 구성원들의 작은 정성이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남원 산동면 발전협의회, 화재 피해 위로금 전달

남원시 산동면 관계자는 지난 8일, 산동면 발전협의회(회장 고재운)가 관내 화재 피해 주민의 아픔을 위로하고 빠른 회복을 기원하기 위해 위로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피해자는 지난 3월 28일 화목보일러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택이 전소하는 등 수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산동면과 면 발전협의회에서는 신속한 긴급 구호물품 전달을 통해 이재민의 안위를 살피고 화재 피해 현장 철거 및 복구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자치행정국, 천사무료급식소 배식 봉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일, 자치행정국장 등 13명의 공무원들이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 정리 등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식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이용했다. 이번 봉사는 자치행정국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단순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원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직원은 "업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장 운영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진수 자치행정국장은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 곁에서 따뜻한 손길을 전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고사리 손이 만든 큰 변화’

전주동중, 학생 주도로 220kg 병뚜껑 모아 ESG 실천 앞장

전주동중학교(교장 강신미) 학생들이 작은 병뚜껑 하나하나에 담긴 환경 사랑으로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전교생이 참여한 병뚜껑 수거 캠페인을 통해 총 220kg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모으며 실천하는 환경운동을 전개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7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학생자치회 '동지승 7기' 주관으로 진행됐다. 요즘 환경 분야의 화두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한 '학급별 병뚜껑 모으기 챌린지'로 기획됐다. 학생들은 일상에서 사용한 음료병의 뚜껑을 하나씩 모으며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체감했고, 자발적으로 모은 병뚜껑은 공동체적 실천의 상징이 됐다. 총 220kg에 달하는 병뚜껑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다시 자원으로 순환되는 가치를 지닌 결과물이다. 학생들은 수거 활동뿐만 아니라 병뚜껑이 재활용돼 새로운 제품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함께 학습하면서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였다. 더불어 내 손으로 지구를 지키는 실천적 경험은 학생들 사이에 강한 책임감과 소속감도 심어주는 현장형 교육이 됐다. 이번 행사를 박세진 학생회장(3학년)은 "우리 손으로 환경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환경에 대한 책임감도 생겼다"며 "무엇보다 친구들



과 함께 만든 변화에 뿌듯함을 느끼고 앞으로도 학교 인pflicht에서 ESG 가치를 실천해 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주동중학교는 지속가능한 미래 교육의 흐름에 발맞춰 올해를 '환경교육 특색사업'의 원년으로 정했다. 이를 통해 다화용기 사용 챌린지, 환경 골든벨, 환경 주제 프로젝트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강신미 교장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환경 감수성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생 주도의 환경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남원시보건소,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 실시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올해 처음 C형간염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80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혈액·체액 노출 위험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와 50세 이상 고연령층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C형간염 확진자 가족, 과거 혈액제제 수혈 및 주사기를 공유해 사용한 경우나 C형간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등을 우선 순위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신속항체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C형간염 항체검사는 약 5~20분 정도 소요되며, 남원시보건소(결핵관리실, 임상병리실)를 방문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단, C형간염 항체검사 결과가 양성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C형간염 환자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항체 양성 판정자를 대상으로 확진



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치료 연계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계획이며, C형간염 무료 항체검사를 희망하는 시민은 건강생활과 감염병관리팀(063-620-7931)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미래로 도약하는 정읍, 우리가 함께”... 직원 한마음대회 성료

정읍시 공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통과 화합을 다지며 새로운 도약을 위한 에너지를 충전했다. 시는 지난 9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정읍시 직원 한마음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직자들이 동료애를 바탕으로 서로 격려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갖고, 이를 통해 시민과 함께 미래로 함께 도약하는 정읍을 만들어 가는 데 든든한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하수 시장을 비롯해 임승식·염영선 도의원, 박일 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등 많은 내빈과 공직자들이 자리를 함께해 그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정읍시립농악단의 신명 나는 공연으로 활기치게 시작됐다. 이어 시의원들과 건부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한 친선 203과 경기가 치러졌다. 이후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에어사다리, 전라출다리기 등 3개 종목의 한마음 경기가 진행되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여 열기를 뜨겁게 달궜다.

/정읍=김대환 기자



비전대, 이차전지융합전공교육과정 산업체 견학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지난 8일 이차전지융합전공 교육과정 일환으로 산업체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전문대학 지원사업 20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견학은 국내 최대 규모인 18.7MW 수상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인 군산 새만금 유수지의 PND솔라에서 진행됐다. 이에 학생들은 5만 2천여 개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된 발전 설비를 직접 둘러보며, 재생에너지 산업의 최신 기술과 현장을 둘러봤다. 이날 견학에는 신재생에너지과, 전기공학과, 미래모빌리티학과, 기계과 등 이차전지융합전공 특별반 소속 재학생 30여 명과 교수진, 실무 담당 직원들이 함께 했다.

/장은성 기자



김제농협, 가정의 달 맞아 행복나눔 행사 성료

김제농협(조합장 이정용)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행복나눔' 행사를 개최하고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70가구에 생필품 꾸러미와 카네이션을 전달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제농협 임직원과 농가주부모임(회장 김옥자) 회원 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직접 꾸러미를 포장하고, 각 지역을 돌며 정성껏 준비한 물품과 꽃을 전달했다. 전달된 꾸러미에는 국탕류, 밀반찬, 생필품 등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목들이 포함되었으며, 행사 당일 어버이날을 기념해 특별히 준비한 카네이션 화분도 함께 전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김옥자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어버이날은 우리가 삶의 뿌리를 돌아보는 뜻깊은 날이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 내장권 관광 발전 연구회, 사계절 관광 모색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의원 연구단체 '정읍시 내장권 관광 발전 연구회'(대표 이상길)가 지난 8일 첫 간담회를 개최하며 내장권을 사계절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연구회는 이상길 의원을 대표로 하여 송기순 오명제, 김석환 의원이 참여해 내장산·내장호를 중심으로 정읍시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됐다. 사계절 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연구 활동은 11월까지 진행되며, 자료 수집 및 현장 조사, 관련 기관과의 토론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여 조례 제정 및 행정적 지원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지평선봉사대, 어버이날 효(孝) 듬뿍 음식 나눔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지난 9일 자치행정국장 등 13명의 공무원들이 천사무료급식소를 찾아 배식, 정리 등 배식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배식은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300여 명의 어르신들이 무료급식을 이용했다. 이번 봉사는 자치행정국이 평일 근무시간 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단순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원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부 직원은 "업무 시간 조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었지만, 현장 운영을 직접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제이에스건설, 무주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유)제이에스건설 장민성 대표가 9일 (재)무주군교육발전 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에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 장민성 대표는 "아이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에서 든든한 지지와 응원을 받으며 꿈을 이뤄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장학금을 기탁하게 됐다"라며 "보탬이 되면 좋겠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이에스건설은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금속 구조물 및 창고공사 전문 회사로 2022년과 2023년도에 각각 장학금 2백만 원을 기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태건이엔씨, 무주군에 장학금 200만원 기탁

(재)무주군교육발전장학재단(이사장 황인홍 무주군수)은 9일 (주)태건이엔씨 장애진 대표가 장학금 2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단을 찾은 장애진 대표는 "지역 기업으로서 무주의 미래, 무주의 꿈인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기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 무주읍에 위치한 (주)태건이엔씨는 건설회사로 2022년에는 1백만 원 2023년에는 2백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